

## 삶의 터전인 마을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정신건강위기가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박용찬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

경북 성주군은 인구 4만 명의 소도시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이 많고, 주민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溫) 동네 스무바퀴'를 진행하며 주민과 마을이 함께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4년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정신건강위기가구 통합지원사업 '마음심(心)터'를 시작했다.

### 성주군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처하다

“성주군은 경북 지역에서 봉화군에 이어 자살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자체에서 활발히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된 주민들이 많아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직접 복지기관으로 찾아오기 어렵고, 기관에서도 일일이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죠. 복지 서비스를 숫자로 단순화하거나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산재단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음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윤여국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성주군은 인구수는 적지만 복지 수요와 욕구는 대도시보다 훨씬 높다”고 말한다.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도, 운전도 어려워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우자의 치매로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거나,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고립된 경우도 있었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성주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우울, 불안, 자살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해 마음건강검사를 실시했다. 2년에 걸쳐 약 670건의 마음건강검사를 실시했고 130여 건의 고위험군을 발굴했다.

## 정신건강 지원의 첫걸음은 마을 공동체의 변화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검사를 실시하며 고위험군 발굴에는 성공했지만, 일시적이었을뿐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정신건강과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농촌 마을공동체의 특성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마을 중심의 관계망이 강했어요. 마을이 대부분 집성촌으로 이뤄져 있거나,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같이 친한 경우가 많아서 마을에 소문이 날까 봐 숨기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등 상담을 시작하는 것조차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복지관 차량이 대상자 집으로 가는 걸 보고 주민들 사이에서 ‘저 사람만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결국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대상자의 삶이 회복되려면 삶의 터전인 마을 공동체의 변화가 중요했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 중심의 ‘마음건강 보듬마을’ 활동을 펼쳤다.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립되었던 고위험군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마음건강 지킴이 봉사단을 조직해 고위험군 대상자들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상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다

현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음건강 보듬마을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활력을 주고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마을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이 있었는데, 첫 상담부터 정말 금방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마을 이장님의 도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건강 보듬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취급만 받다가 마을사람들이 ‘이전엔 호인이었다, 술 탕이다’라며 격려해주는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나봐요. 지금은 스스로 술을 줄이고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최유섭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치유와 마을 차원의 공동체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한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음건강 보듬마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 리더 교육과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 농촌형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윤여국 과장은 “성주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과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마음건강 지원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윤여국 과장(왼쪽)과 최유섭 사회복지사(오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강 교육.